

# 숨조각 속에 약사여래 자비심 담아

초심을 지켜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그것이 내 안위와 무관한 '타인을 위한 봉사'라면 더 그렇다. 게다가 그 내용조차 '봉사'라 이름 붙이기 힘들 정도로 소소한 일인 경우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11월 13일 쫓은 한국불교사회봉사회(회장 김명순) 회원들에게만은 이것이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그네들은 이미 12년째 서울대학교병원 사회봉사실 한 칸에 앉아의료기구를 손질하고 있다. 당시 50대 '주부'였던 최옥실(71) 할머니는 봉사와 함께 철수를 맞았고, 한원자(65) 할머니는 예쁜 머니리를 두 명이나 들이게 됐다. 귀밑머리는 하얗게 시어가고 세상은 거칠 것이 없어졌지만 이들의 일은 변한 것이 없다.

"수술용 솜을 포장하는 일이다. 이렇게 네 개씩 뜯어서 포장지에 쓴 다음 테이프를 붙여, 그림 저기 삼성 보살이 10개씩 묶어서 상자에 담지."

하는 일이 무엇이나고 문자 16명의 노보살들이 앓다 쉰 설명에 나선다. 이들의 업무는 수술용 솜 손질, 공장에서 바로 들어온 솜박스를 뜯어 그 안의 솜을 다루기 쉽게 떼어낸다. 그리고 얇은 솜을 4장씩 분리, 10개를 하나로 묶어 소독실로 유통보낸다. 이 묶음들은 소독실에서 일제히 멸균과정을 거치게 된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손을 거친 재료로 환자의 아픔을 뒤흔어내는 것이니 말이지."

임만순(62) 할머니 말대로 그들의 손에는 각별한 정성이 배어있다. 병원의 의사들처럼 환자들을 직접 대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의료기구나 환자를 만나는 생각을 놓는 적이 없다. 환자의 병 치료에는 의사의 의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치료기술이 전부가 아니다. 불교사회봉사회 보살들은 오랜 신원경에서 '정성'이라는 명약의 중요성을 깨달았기에, 숨조각 속에 마음을 실어 환자의 쾌유를 일념으로 기도한다.

## 바라밀현장

### 천축사 불교사회봉사회 서울대병원 봉사



◇서울대병원 사회사업실 내에서 수술용 솜을 손질하고 있는 천축사 불교사회봉사회 회원들. 사진=박재원 기자

## 수술에 사용할 솜 다듬기 12년째 정성이 명약이라는 마음으로 봉사 바자회등 통해 꾸준한 보시행 펼쳐

다. 겨자씨 속에서 수미산을 노래하듯, 작은 솜조각 안에 약사여래의 깊은 뜻이 가득하기를 발원해 온 것이다.

불교사회봉사회 회원들의 봉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천축사 신도 중심으로 이뤄지는 두 팀의 '서울대병원 의료기구 손질봉사' 외에도, 각종 차와 단주 등을 팔아서 매

년 천만 원 상당의 심장병 어린이들이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90년대 초에 시작한 '심장병·백혈병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로 서울대병원과 인연을 맺은 것이 계기가 돼, 이후 10 여년동안 변함없이 이어 온 보시행이다.

이외에도 봉사회는 3백여 회원들을 중심으로 고아원, 양로원 등을 방문해 청소, 빨래 등을 해주며 꾸준한 노력봉사를 벌이는 한편, 생활용품을 별도로 지원해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불자군인들을 위해 각 군방담

및 훈포장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군인들에게 합장주를 곁여주며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도봉구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5명과 무의탁 노인 5명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을 비롯, 연말이면 자선바자회와 일일차집 등의 행사를 마련해 불우이웃에게 보탬이 되고 있다.

12년의 세월동안 불교계 봉사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온 불교사회봉사회. 이들의 보살행 계획을 되짚으며 앞으로 이어질 제 2, 제 3 봉사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 (02)997-9468

강신재 기자 thaiswhy@buddhapia.com

##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란자니 드 실바 사카디타 초대회장 (L)

## 스리랑카 비구니 교단 재건

19 세기 말엽, 서구 기독교인들의 지배에 저항하며 스리랑카의 불교 부흥을 이끈 것은 재가자들이었다. 특히 여성 재가자들은, 당시의 비구교단이 여성의 종교적 염원이나 교육 욕구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초기불교 이래로 가장 신심있는 불자들이 수지해오던 10계를 스스로 지키겠다고 일부 여성 재가자들이 나선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러한 최초의 '10계를 지키는 여성들', 즉 '다사 실 마타보(dasa sil mātavo, 10戒女)'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통적인 비구니처럼 삭발하고 가사와 흰색 법복을 입으며 '아라마야

리랑카를 제외한 남방 불교권에서는 사미니-비구니 제도가 없고, 대신 8계녀 또는 10계녀 제도가 있어 여성수행자는 절에서 10계를 지키며 살아간다'고 밝히고 비구니 승단 재건에 불교 국가의 공동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스리랑카의 비구니 승단 재건은 상좌부권 불교계에서 비구니와 여성불자의 힘만으로 가능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남방 불교권에서 비구니 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스리랑카에는 현재 400명의 비구니 스님과 4천여명의 10계녀다사 실 마타보가 비구니 교단의 기틀을 다지고 있는 것이다. 실바 회장은 '이



◇란자니 드 실바 '스리랑카 사카디타' 회장

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강한 수행력과 원력을 갖춘 비구니 스님이나 여성수행자의 역할과 함께, 독일인이었던 아야 케마스님의 노력이 결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스리랑카 비구니 교단의 복원에는 사카디타의 지원이 절대적이었다. 1993년, 사카디타가 스리

## 여성 출가자 제도 복원, 지도자 양성에 주력

### '10계녀'로 승단 기틀 마련 국제적 홍보 노력

'부처님의 딸들'이라는 뜻의 세계 여성 불자 연합회인 '사카디타(Sakadittha)'의 창립멤버이자 초대 회장인 란자니 드 실바(Ranjani De Silva, '스리랑카 사카디타' 회장)는 상좌부 불교에서의 여성 출가자 제도를 복원시키는 등 전 세계적으로 여성 불교지도자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아야 케마스님과 함께 사카디타 창립을 주도했던 실바 회장은 스리랑카에 비구니제도를 확립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2003 참여불교세계대회(INEB)'에 참석한 실바 회장은 "사카디타의 정립은 전 세계 여성 수행자들의 힘의 결집체였다"며 "이는 곧 스리랑카 비구니 교단의 재건이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가능케 했다"고 평가했다. 실바 회장은 "스

리랑카 콜롬보에서 세번째 국제회의를 개최했을 때, '10계녀 제도'를 비구니 승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요구는 최고조에 달했다. 수백명의 10계녀가 이 국제회의에 참석해 타지역의 비구니와 불교계 여성들을 만나서 토론하고, 여성 수행자의 삶을 사는데 있어 필요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와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카디타 스리랑카 지부는 대중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 많은 프로그램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것은 여성 수행자들의 잃어버린 비구니계를 되살리고 불교의 존속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다.(계속)

김재경 기자

## "가슴이 따뜻해야 공부도 즐겁죠"

### 심성수련봉사 펼치는 김연숙씨

### 강릉자비원서 마음 수련 지도 존엄성 인식케 하고싶어 봉사

"아이들의 심성이 바뀔때마다 자식을 낳는 기분이 듭니다. 천진불의 미소를 되찾아 줄 수 있어 기쁩 따름이지요." 사회복지법인 강릉자비원(대표 부동스님)

에는 '관세음보살'을 닮은 보살이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연숙(48) 씨. 김 씨는 매달 강릉자비원을 찾아 아이들에게 무료로 심성수련 지도를 펼치고 있다. 결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들 마음 속에 자비심을 새기는 것이 벌써 일상이 돼 버렸다는 보살이다.

그런 그가 심성수련 봉사를 시작한 것은 6년 전. 강릉시 교육청 청소년 상담자원봉사자 과정에 등록하고부터다. 시작했을 때는 특별한 생각이 없었으나 상담자원봉사 교육

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마음치료를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

그러다 육천초등학교, 관동중학교, 문성고등학교를 비롯한 강릉시내 초중고등학교에 무료강의를 펼치면서 마음수련 지도의 노하우를 쌓아왔다.

"자비봉사회' 회원으로 강릉자비원을 드나들다 자비원 봉사를 결심하게 됐다. 김 씨는 "스스로 불행한 가족구성원이라 구분짓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존엄성을 인식케 하고 싶었다"며 "체계적인 인성개발 프로그램과 명상 등을 통해 자기를 긍정하고 표현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다"고 밝혔다.

강릉자비원=033)642-3555 강신재기자



◇김연숙 씨가 강릉자비원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심성수련을 지도하고 있다.

### 월간역학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되어 주역·풍수지리·사주명리·관상학과 유·불·선의 심오한 사상을 알기 쉽게 실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배포하는 국내 유일의 동양학 전문지로서 99년 11월 1일 문화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훌륭한 잡지입니다.

월간역학에서는 역학전문학원인 월간역학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학원을 졸업한 분에게는 수료증과 자격증을 수여하며 개업시 월간역학을 통해 적극 홍보해 드립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의(www.kbs.cc)를 듣는 분에게도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확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7만원)

**강의실 수강생 모집**

사주(초·중·실질), 관상(마의상법) 풍수(금강경), 수상, 육묘 .12월 5일(금) 개강

과목당 월 10만원(3개월 단원접수)

월간역학교육원

# 명당탐지기

## 관룡자

사람마다 학설이 다르니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풍수지리... 이젠 관룡자로 당신이 직접 명당을 찾으세요.

**관룡자란?**  
심룡자라고도 불리며, 이미 수천년전부터 중국의 황실에서 궁궐터를 잡거나 황제의 묘터를 잡을 때, 기존의 터를 감정할 때 사용되던 기구로, 1990년 7월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진산실업(주)에서만 생산 공급합니다. 조계사, 해인사, 수덕사, 상원사, 월정사 등 오랜동안 번성해오는 사찰과 서울 명동성당,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천도교당 등 번성하는 종교단체의 건물, 세종대왕 등, 남연군 묘, 이미 명당으로 알려진 여러 문종의 묘, 일본 동경의 황거(皇居)와 오사카 성, 북경의 자금성을 비롯한 황제들의릉, 대만의 중정기념당(장개석 동상) 등 이미 명당으로 알려진 세계적인 유적과 사찰물에서는 틀림없이 관룡자가 작동됩니다. 또한 아직 찾아내지 못한 명당자리도 국내에는 많습니다. 충남 예산에서 교육장을 역임하신 김모선생께서 관룡자가 작동되는 지점에 은하니무 묘목을 이식하였는데, 수령 2년생인 나무 묘목에서 후두덜 굵기의 은행 열매가 60~70여개씩 주렁주렁 열렸습니. 김선생께서는 이것을 보고 명당의 지기를 실감했다고 말씀합니다.

저희는 관룡자가 불타나게 팔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관룡자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분들 가운데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친구나 친지에게도 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이 기구를 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충청도의 남모교수는, 자신은 관룡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에게 "기구로 명당을 찾을 수 있다면 왜 나한테 배우려와?"라고 호통을 친다. 그러나 가장 아끼는 제자는 자신이 직접 데리고 와서 관룡자를 구입해 했습니다. 경상도의 김모교수, 서모회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관룡자를 은밀히 사용해 오지만, 어쩌다가 주위 사람들 눈에 띈 "이것은 수십년전에 중국의 한 도사가 전해 준 것으로 국내에 있는 건 모두 가짜다"라고 합니다. 전라도 김모선생의 경우 "함께 풍수공부하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관룡자를 구입하겠다고 했더니 '그건 모두 가짜라고 하니 제발 사지말라'고 하더군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말렸던 사람들은 모두 이미 오래전부터 은밀하게 관룡자를 사용해오는 분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그 분들의 심성이 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훌륭한 것은 자신만 소유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터(명당)에 대한 욕심에는 형제도 없다'는 속설이 증명되는 것이지요.

**누가 어떻게 사용하나?**  
주택이나 아파트, 빌딩, 사찰, 교회 등 건물 신축이나 기존 건물의 터를 감정할 때, 산소나 납골당, 공원묘지의 터를 잡거나 기존의 자리를 감정할 때 관룡자를 사용하면, 명당에서만 발산되는 특별한 지기(地氣)에 반응하여 지기가 흐르는 명당(穴)의 방향을 가리키므로 터를 잡는 것은 물론, 건물이나 산소의 좌향(방향)까지 잡을 수 있으므로,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미 국내의 교수, 사업가, 전문경영인, 법륜가, 풍수지리사 등 500여명이 활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원래 관룡자는 88만원 임니다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께는 특별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관룡자(88만원)+월간역학 1년분 (105,600)-985,600원을 80만원으로 할인해드립니다. **■ 구입방법** : 수협 227-01-002756 예금주: 진산실업(주)로 80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로 주소 성함 불리우시면 자세한 사용설명서와 함께 즉시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1년간 월간역학을 우송해드립니다(관룡자 휴대용 주머니(1만원 상당))무료증정.

- 신용품도 소지하신 분 12개월 분할가능. 기업체에서 구입시 세금 계산서 발행. 구입 후 반품을 원하시면 1개월 이내 언제든지 즉시 환불해드립니다.
- 월간역학 1년분 구독료는 105,600원이지만 지금 신청하시면 99만원으로 할인+수택택지봉 1세트 무료 증정
- 수제품 황금 18k 헤드 관룡자 주문제작 • 육용용 수제품 서주과 산목셋트 판매

www.kbs.cc

향간 13주년 기념 사은행사

## 월간역학

(02)2264-0258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호 청옥빌라트 101호